

한지형(단양종)과 난지형(남도종)이 81~82%였고, 중간형(DL01)은 68%로 가장 낮았다. 출현율은 종구재료와 생태형 간에 상호작용이 인정되었는데, 모든 종구재료에서 중간형(DL01)과 분구파종에서 난지형(남도종)의 출현율은 특히 낮았다. 이는 2월 25일 춘파 당시의 저장에 따른 종구활력의 차이로 중간형(DL01)의 모든 종구와 난지형(남도종)의 분구 종구는 다른 종구보다 입중이 무거웠는데 종구재료의 크기가 컸기 때문에 저장성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2월 25일의 춘파 이후 저온피해는 종구재료 간 통계적 차이가 없었으며, 생태 형별로는 한지형(단양종)이 저온에 가장 잘 견디어 피해가 적었고, 다음으로는 난지형(대서종)이 피해가 적었으며, 중간형(DL01)이 한해의 피해가 가장 컸다. 이는 중간형이 출현시기가 빠른 만큼 저온기의 노출기간이 길었고, 출현율이 낮아 초기생육이 불량했기 때문에 한해 발생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Table 12. Comparisons of emergence rate and degree of cold damage based on seed bulb material and ecotypes in spring cultivation of garlic.

Seed bulb material	Ecotype	Emergence rate (%)	Degree of cold damage (0~9)
Bulbil	Cold type ^{a)}	83	3
	Inter.-type ^{b)}	70	5
	Warm type ^{c)}	86	5
	Mean	80 a	4.3 a
Single bulb	Cold type	75	2
	Inter.-type	65	7
	Warm type	89	5
	Mean	76 b	4.7 a
Clove	Cold type	89	3
	Inter.-type	69	6
	Warm type	68	4
	Mean	75 c	4.3 a
Ecotype mean	Cold type	82 a	2.7 c
	Inter.-type	68 c	6.0 a
	Warm type	81 b	4.7 b
S ^{d)}		**	ns
E ^{e)}		**	**
S×E		**	ns

^{a)}Danyangjong, ^{b)}DL01, ^{c)}Namdojong, ^{d)}Seed bulb material, ^{e)}Ecotype

Same letters within a column indicate no significant difference at $\alpha=0.05$ by DMRT(*, $p<0.05$; **, $p<0.01$; ns, non-significant)

춘파재배에 따른 종구재료와 생태형별 지상부의 생육특성은 Table 13과 같다. 지상부의 생육은 주아파종이 단구파종과 분구파종보다 저조하여 초장, 엽수, 엽초경 및 엽폭에서 생육량이 적었고, 단구파종과 분구파종 간에는 생육이 비슷하여 초장을 제외하고는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